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10월 11일 개최

효월드 효문화 중심도시, “짧은 중구 활기찬 경제”란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11일-13일 대전 뿌리공원 일원에서 대전광역시 중교(청장 박용갑)주최로 제5회 대전효문화뿌리 축제가 개최된다.

효문화뿌리축제는 국내 유일의 성씨를 테마로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조상의 일을 보고, 느끼면서 나의 뿌리를 찾고 우리 전통의 효를 체험하는 축제이며 성씨 뿌리

를 통해 조상의 일과 지혜 및 전통 문화, 효 확산 전국단위 각 문중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확충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청년 문화에 축제 병행, 등 축제화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11일 행사로 퓨전 국악콘서트, 문중퍼레이드, 퍼포먼스 天地人孝 활쏘기 대회, 방인숙 모녀 민요명창, 어린이 효인형극, 효문화

뿌리 사생대회, 문중孝 장기자랑,孝마당극, 효녀 심청전, 낙화산비비루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확충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청년 문화에 축제 병행, 등 축제화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권문은 11일 10시부터 개최하는 행사에 가족과 함께 많이 참석하여 뜻 있는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권오복 편집위원)

‘대한민국 愛國市民聯合 창립’ 出帆式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의 해를 맞아 좌경화된 교육, 문화, 언론,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창립 출범식’이 8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이상훈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애국은 국가안보, 자유로운 기업 활동,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따른다”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각 분야 시민단체 및 개인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필요시 행동도 함께하는 유연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의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는 우리가 내부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몰락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해속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오는 등 단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反대한민국 총복세력의 발호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적시했다.

또 “이들은 최근에는 국회에까지 진입해 명백히 드러난 NLL포기 발언 같은 영토주권문제도 당리



△權正孝 李啓成 權寧海 金吉子 상임고문洪在澈 李相勳 高永宙 朴定秀 등

당락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고, 일부 야당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을 통째로 흔들고 중·고생까지 산동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내부 균열과 위협요인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이 일어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분열, 편가르기가 아닌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교육바로세우기 △문화권력 되찾기 △언론정화 △사법정의 세우기 △국민감사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교육계의 경우 전교조는 청소년들에 대한 친북 반국가적 교육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반대한국

적이 되는 젊은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계의 경우 “친북, 반미, 반대한국적 이념집단이 90%가 넘는다”며 “이들이 문화계의 헤게모니를 잡고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쪼먹고 있다”고 심각성을 제시했다. 또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또한 “우리사회의 친북 좌경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론이 좌경노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언론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사법정의가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사법정의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동정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에 권경석(67)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전통문경유죽회 경복지부 히계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전했다.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문화번역원(원장 김성근)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및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성(72)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세계신문신문협회 서울총회에서 “한국의 언론조정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중호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석탄공사 제37대 사장에 권혁수 전 부사장(64·고양)이 23일 선임됐다.



▲(주)웨어인 인터넷서널 권기찬(62)회장은 14일 오후 5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조르조 니콜리타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리아 공화국 국가공로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권영택 영암군수는 23일 영암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암시장 상인 대학졸업식에 참석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9일 CJ E&M과 ‘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13일 성주재단과치세대 여성예술과 문화예술 후원약정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제24회 안동민속축제)행사가 오는 9월 27일-10월6일까지 탈춤공원(주공연장)하회마을에서 안동시(주최),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주관)으로 개최된다.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LG엔암문화재단이 선정하는 2013년 연합해외연구교수로 선임되었다.

지역대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권충현씨 취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기나긴 세월, 34여년을 오로지 2세 교육에 몸바쳐온 외골 삶의 권충현(사진)씨가, 지난 9월 1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취임했다.

권충현 동부교육지원청 신입교육장은 수동면 도복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경북 울진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에는 대구에서 교직생활을 두루 거쳐 대구 도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다가 이번에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대구광

역시의 교육 1번지라는 수성구, 중구, 동구 3개 구청에 속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학생이 10만 명, 교직원 6,0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교육청이다.

권충현 교육장은 함양중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서기석 헌법재판관과 임창호 군수와 동기생이다. 권 교육장은 교육연수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함지고등학교와 도원고등학교 교장으로서 34년간의 교육 현장을 지켜왔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중등학교 교과의 직무관여도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대구광역시국립중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으로 학교현장의 문제 해결과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 교장 자격연수과정의 연수생들에게 ‘효과적인 교내 갈등관리’에 대해 5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

권충현 신입교육장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배움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 가는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 그동안 교직 생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비를 잘 집목해서,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충현 교육장은 재경 함양군 향우회와 재경 수동면 향우회 발족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남다른 애환심을 발휘해 주고 있는 권도현(77세 북야공파35세 가나기획 대표이사) 재경 함양군 향우회 상임고문의 친동생이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계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백강래 서울지사장)

권도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취임

권도현씨(60, 안동·북야공파·33세)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에서 지난 9월 1일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권 교육장은 안동시 서후면고리(은곡)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

교감을 지냈으며 군위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했다.

이어 임하초등·안동영호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경산교육·안동교육지원청 교육 지원과장을 거



쳐 금반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씨는 60여년을 교육에 한길을 걸으며 생(畵)의 일면을 진지하게 추구해 가고 있다. (권혁세 기자)

서울 청장년회 정기월례회 개최



△권혁창 서울청장년회장이 9월 정기 월례회의 전 참석자 회원 축전 회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혁창(서울청장년 회장)은 지난 9월12일 19시에 서울 서초동 강남역 영터리생고기식당에서 권혁조 고문 및 영석 서울산악회장, 임원진 등 그리고 당회 임원진,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 진행은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에 이어 혁창 회장의 인사말로 “오늘 추석을 앞둔 정기월례회에 참석 해주신 축전회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한후 순용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개되었지만

최초계획은 현 연연에 한마음회 회장인 권성희 가수, 권재관 개그 등 특별출연이 계획되었는데 사정상 추후 초청키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오늘 회원배가 증진에 따른 회원들의 관심으로 많은 축전이 함께하여 감사하다고.” 인사하였다.

이날 신입회원 소개로 전(前)대전 초대청장년회장 권근원(61. 추밀공파.35세. 현 구로구소재 무선영상전송시스템 상임고문재직)과 영석 산악회장의 장조카인 권오영(60. 추밀공파. 35세), 대종원 범준부장이 소개한 권우식(53. 북야공파. 37세. 현 LIG손해보험 금천지점재직)등이 소개 및 인사하였다.

이어 격려축배 제의로 혁조 고문(초대서울산악회장) 및 영석 서울산악회장, 근원 前대전청장년회장 등이 당회 발전을 위하여 촉배제의로 회원들의 큰박수의 화답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9월 정기월례행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 혁창 회장은 회원들에게 추석성묘를 맞이하여 민속주 구기자술 2병(시가500만원)씩을 선물 찬조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권혁태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시에서 현 주민생활 지원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권혁태씨(영주·58세) 그는 영주지역 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있다.

씨는 1973년 영광고등학교와 98년 방송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안동대 행정대학원지역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2년 영주시 문화관광과장, 가흥1동장, 부석면장, 새마을 교통과장, 기획감사팀장, 회계과장, 전략기획단장을 거쳐 현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의 다수가 있다. (권혁세 기자)

權奇佑 변호사 불멸의 영웅 최동원 동상건립

불세출의 영웅, 전설의 자이언트”로 불렸던 최동원야구선수가 부산 사직별로 영구 귀환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3시 부산사직야구장 입구에 허남시 부산시장, 김무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이재오의원 권철현 전주일대사, 부산시민 및 최동원팬 500여명의 참여하여 최동원 동상제막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안동권씨 부산총친회 부회장이인 권奇佑(법무법인 구덕대표변호사)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부산 시민이 헌성한 성금 2억원을 모아 동상을 건립키로 하고 장소를 사직구장으로 정하였다.

생전에 마운드에서 역동적으로 공을 던지는 최 선수의 모습을 본뜬 동상이 세워지기까지는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권기우(57·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의 공이 컸다.

권 변호사는 “야구를 좋아한게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집 옆에 롯데 자이언츠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구덕야구장이 무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에 더 자주 갔지요.” 최동원 선수의 열혈팬이 된 건 1984년 한국시리즈 때문이었다. “최 선수가 다섯 경기에 등판해 혼자 4승을 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몸이 힘들었을 텐데 자신이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팀과 팬을 위한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권기우 변호사가 사무실에서손에는 최동원 야구공을 쥐고동상건립하게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최 선수가 80년대에 선수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협 결성을 주도하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호감도 갖게 됐다. “최 선수는 척박한 스포츠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 동료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선수로서 최고였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권 변호사는 2011년 최 선수가 타계한 후 동상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뜻이 맞는 10여명이 모여 ‘최 동원기념 야구 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8월에는 더 체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고 최동원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회원들의 추대로 이사가 됐다.

기념사에서 권 이사장은 “야구장에 야구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사상최초로 한국야구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일로, 동상건립은 ‘불멸의 영웅’ 최동원을 영원히 부산시민 곁에 두고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서 동상 건립에 소중한 정성을 모아준 부산시민 및 최동원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함으로써 370만 부산시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으니 안동권문의 한사람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부산총친회)

僕射公派祖諱守洪秋享安內

晩秋之節에 派親 여러분들의 家內에 幸運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癸巳年 派祖府君(諱守洪) 秋享을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家族同件하여 꼭 參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日 時: 2013년 11월 4日 (陰曆 10月 2日) 月曜日 10:30
場 所: 慶北 安東市 西後面 校理 松夜壇所(松坡齋舍)
交 通: 안동터미널에서 풍산방향 2km(시내버스 11, 42, 44, 46, 72, 76) 서후(51,98) 서안동IC→시내쪽(5km) 송야고 사거리(좌회전)→서후방향 1km 남안동IC→송현 사거리 풍산방향 4km(왕송짜장 옆길 150m)
連 絡 處: 慶北 安東市 太華洞 666-62(派宗會館) ☎(054)855-6986 派宗會長: 010-5161-4271 總務部長: 010-3504-2083

2013年 10月 1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啓 東